

17세기 동래 정씨 興谷公派 一家 묘의 출토복식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The Excavated Costume from the Graves of the Tong-Rye Jung Clan in the 17th Century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3. 1. 22 투고)

ABSTRACT

The costume of the 17th Century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 from the graves of *Tong-Rae Jung* Clan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remaining were used for filling up the coffin consists of 1 piece of *Dopo*(道袍) from the grave of *Jung, Kwang-Kyung*, 7 pieces of *Joongchimack*(中赤莫), 1 piece of *Sochang-eui*(小斲衣), and 1 piece of pants from the grave of *Jae-Hoo Jung*, grand-son of *Kwang-Kyung Jung*.

From these remainings, this study newly reveals or confirms : 1) Standards of transition procedure of mid-17th century's *Dopo* with gussets, 2) Standards of transition procedure of late 17th century's *Joongchimack* with wide sleeves and side slits, 3) Standards of transition procedure of late 17th century's *Sochang-eui* with narrow sleeves and side slits, 4) Typical style of pants in the 17th century, 5) The constructive methods for quilted fabric.

Key words : excavated costume(出土服飾), *Dopo*(道袍), *Joongchimack*(中赤莫), *Sochang-eui*(小斲衣), pants(바지), quilted fabric(누비)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9년 9월 1일, 東萊 鄭氏 興谷公派 종친회에서

는 서울시 사당동에 위치한 선조 묘역을 맞은 편 구릉으로 이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량의 복식이 수습되었으며 문중에서는 이를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였다.

1992년, 박물관에서는 문중에서 기증한 복식 유

물들의 보존처리를 마친 후, 『東萊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¹⁾를 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복식사 연구 성과와 새로운 문중 제보 자료에 의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동래 정씨 문중의 복식 유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여 17세기 남자 복식의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가 명확한 유물의 조형성이나 구성상의 특징을 통해 墓主가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출토복식에 대한 연대 추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몇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다룬 출토복식 유물은 1989년 당시 이장된 동래 정씨 묘역의 鄭廣敬(1586~1644, 59세)과 손자 鄭載厚(1624~1695, 72세)의 묘에서 수습된 4종의 남자 복식류 10점이다. 이들 동래 정씨 묘의 유물들은 16세기 말 임란 직전부터 17세기 말에 이르는 17세기를 살았던 인물들의 것이다. 그들의 沒年을 중심으로 볼 때, 17세기 중·후기 복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래 정씨 일가의 남자 묘에서 수습된 4종에 대하여 17세기 다른 묘에서 출토된 복식들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면서 17세기 후기동래 정씨 유물의 조형성과 구성법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 피장자의 생존 연대와 행적

1. 鄭廣敬(1586~1644)

정광경은 임란이 발발하기 7년 전인 1586년(선조 19)에 태어나서 1644년(인조 22)에 사망한 문신(文臣)으로, 본관은 東萊이며 字는 公直, 號는 秋川이다. 福謙의 증손으로, 祖父는 惟吉이고, 아버지는 좌의정을 지낸 昌衍이며, 어머니는 韓世建의 딸이

다. 그리고 판서를 지낸 廣成의 아우이기도 하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1616년 司諫이 된 뒤, 尙衣院 正·사인·응교·전한·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사간에 임명되자, 과거의 정청 참여를 자책하여 간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지적하면서 사퇴하고자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李适(1624)의 난 때 형인 광성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우인 광경은 御駕를 호종하였으며, 정묘호란 때는 형이 임금을 따르고 자신이 아버지를 모심으로써 형제가 君父에 대한 충효를 함께 실천하였다고 하여 칭송을 받았다. 그 뒤 예조참의·충청도관찰사·대사헌·同知經筵事·대사간·이조참판 등을 지냄으로써 종2품으로 생을 마감하였다.²⁾ 이 묘에서는 보공용 도포 1점이 수습되었다.

2. 鄭載厚(1624~1695)

동래정씨 흥곡공파 족보(1859년)³⁾에 따르면 정재후는 앞서 살펴 본 정광경의 손자이다. 정광경의 아들이자 정재후의 아버지인 奎和는 인조 갑자년(1606)에 태어나 을해년(1635)에 진사가 되어 察訪(종6품 외직)을 지냈으나 46세인 1651년에 사망하였다. 아들 재후를 19세에 낳았으므로 아들 정재후가 28세 되던 해에 사망한 것이다.

묘주 정재후(字 子久)는 인조 2년(1624) 7월 26일에 출생하여 25세인 무자년(1648)에 생원이 되었으며 參奉(종9품)과 牧使(정3품)를 역임하였다. 숙종 을해년(1695) 6월 12일에 72세로 졸하였으며 사후에 이조판서(정2품)로 추증되었다. 부인은 密陽 朴氏로, 牧使 朴純義의 딸이다. 남편과 같은 갑자년(1624) 1월에 출생하여 남편보다 2년 앞선 계유년(1693) 11월에 70세로 사망하였다.

이 묘에서는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中赤莫 7점과 小弊衣 1점, 사복 바지 1점이 수습되었다.

Ⅲ. 정씨 일가 묘의 출토복식 종류와 조형적 특성

동래 정씨 일가 남자묘에서 수습된 유물은 모두 10점으로, 복식의 종류는 정광경 묘에서 수습된 도포 1점(1종1점)과 손자 정재후의 묘에서 수습된 중치막 7점, 소창의 1점, 바지 1점(3종9점)이다. 두 묘에서 수습된 10점 모두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복식으로, 10점 중 8점(도포 1점, 중치막 6점, 소창의 1점)은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2점(중치막 1점, 바지 1점)은 문중에 보관되어 있다.

동래 정씨 일가 묘의 출토복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발굴, 정리된 17세기 분묘 중 묘주의 생물연대가 명확한 사례를 중심으로 남자복식 유물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리고 보고자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제시된 명칭과 함께 본 연구자 임의의 새로운 명칭을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1. 정광경 묘의 아침색 명주 겹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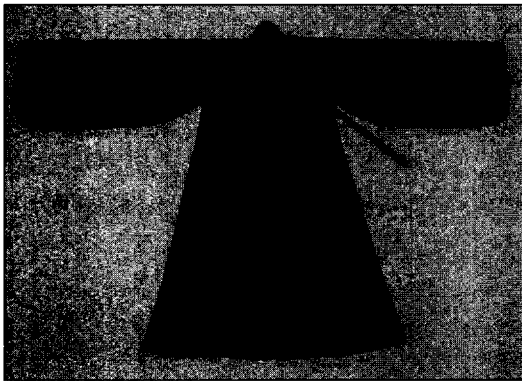
정광경 묘의 아침색 명주 겹도포(그림 1·2)는 1992년 보고서⁴⁾에 부인인 驪興 閔氏(1586~1655)

<표 1> 17세기 묘에서 출토된 남자 복식류

묘 주 (생물연대)	남 자 복 식 류	소장처 (출토지)	출 처
정휴복 (1529-1604)	단령1, 직령6, 액주읍포3, 반수직령포(담호)1, 철릭4, 저고리1, 바지1 등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성남시)	朴聖實·高富子 (1989)
조 경 (1541-1609)	홀단령3, 홀·겹철릭3, 누비액주읍포3, 홀담호2, 솜포1, 겹직령포1, 겹창옷(중치막)1, 겹저고리3, 겹방명형 상의1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 화성군)	박승원(2001)
장기 정씨 (1565-1614)	홀·겹도포2, 솜누비소창의1, 솜누비중치막1, 솜저고리2	안동대학교박물관 (경북 포항시)	안동대학교박물관 편(2000)
이용해 (1547-1626)	직령포(도포)3, 창의4(대창의2, 중치막2), 철릭3, 단령2, 방명1	충주박물관 (강원도 원주시)	충주박물관(2002)
임계백 (1639)	장의(장옷)1, 저고리1, 바지1, 단속곳1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원)	장인우(1998)
문익신 (1556-1645)	명주솜창의1, 명주솜누비직령포1(주의), 명주누비저고리1, 무명솜저고리1, 명주누비솜바지1, 무명솜버선3	동아대학교박물관 (경남 합천)	심부자·전혜숙 (1986:81-90)
임경백 (1657)	도포1, 창의1, 저고리4, 바지3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원)	장인우(1998)
정양우(父) (1574-1647) 정태제(子) (1612-1669)	모자, 모류, 단령, 금사쌍학홍배, 도포2, 철릭2, 창의7(대창의2 포함), 중치막21, 직령포4(광수주의2 포함), 배자1, 담호류(방령의)3, 적삼·저고리5, 바지류9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여주)	高富子·朴聖實 (1990)
홍극가 (?-1670)	도포1, 중치막1, 바지1	안동대학교박물관 (경북 안동시)	안동대학교박물관 (1996)
이행익 (1636-1680)	철릭3, 중치막2, 전복1	강원대학교 박물관	박승원(2001:9)
경주이씨 (1684)	무명솜소창의2	광주민속박물관 (전남 영암군)	안명숙(2001:5~14)
최원립 (1618-1690)	단령1, 철릭1, 직령(주의)1, 대창의3, 중치막3, 소창의5, 전복3, 저고리4, 바지2	이화여대 박물관 (전남 영암군)	안명숙·조효순 (2001:13-22)
홍우협 (1655-1691)	상의류5, 하의류4, 두루마기1, 철릭2, 소창의10, 중치막8, 단령1, 직령1, 창의3 협수1, 담호(전복) 등	충북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시흥군)	김명숙(1999)
최수 (1638-1698)	단령1, 철릭1, 전복, 창의, 중치막(소창의, 중치막), 바지, 적삼(한삼부분), 저고리(길부분)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화성군)	박성실(1996)



<그림 1> 정광경 묘의 아청색 명주 겹 도포(前)
(길이 133.5, 화장 112, 폭 56cm)



<그림 2> 정광경 묘의 아청색 명주 겹 도포(後)
(소매나비 42, 밑단 나비 100cm)

묘에서 수습된 옷으로, '직령'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 후 보공용으로 사용된 新衣로서, 汗版이 달리지 않은 아청색 명주 겹도포로 수정되어 보고된 바 있다.⁵⁾

그러나 근래의 문중의 새로운 제보에 의해 여흥민씨 묘에서 수습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정광경의 묘에서 수습된 것임이 밝혀졌다. 소재는 광택이 좋고 표면 자체가 대단히 매끄러운 평직의 아청색

이이다. 따라서 이 도포는 정광경의 몰년이 1644년 이므로 인조 말년의 '아청색 紬 겹도포'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치수와 구성적 특징

정광경 묘의 도포(유물 1459) 길이는 133.5cm이고 폭은 56cm, 화장은 112cm이다. 전체적으로 옷의 규모가 큰 편이며 소매 진동은 29cm, 소매나비는 42cm, 수구는 21cm이다(표 2).

특히 소매나비는 유물의 연대를 판정하는 단서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 장기 정씨(1556~1614) 묘의 모시 홀도포(33cm)⁶⁾나 金澣(1559~1625) 묘의 면포 겹도포(40cm)보다는 소매나비가 넓고 鄭泰齊(1612~1669) 묘 도포(55.5cm)나 洪克家(?~1670) 묘 도포(52cm)⁷⁾보다는 좁은 것을 볼 때, 역시 도포의 경우, 소매나비 기준이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 도포의 뒤길이와 소매나비의 비율은 1:0.31이다.

겨드랑 쪽 소매의 굴림선은 진동 쪽에서 소매 길이의 1/3 지점까지 완만한 사선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초 수구 쪽이 먼저 넓어지고 차츰 두리소매로 변화하면서 배래선이 급격한 사선으로 또는 거의 수직선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넓어진다. 이러한 소매 배래선의 변화는 단령을 비롯하여 廣袖 포 종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⁸⁾ 따라서 이 도포의 소매형은 17세기 중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준 역시 도포의 연대 판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안섶은 단섶인 반면, 걸섶은 큰 섶 조각 끝에 결대기형의 작은 섶이 덧붙여진 이중섶이다. 옷감의 나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김약(1625) 묘의 도포에 붙은 이중 걸섶의 결대기 보다는 크기가 줄었으며 1670년의 홍극가의 결대

<표 2> 정광경(1586~1644) 묘 도포의 조형적 특징

유물 번호	구성 유형	뒤길이	화장	폭	진동	소매 나비	앞길 무 형태		뒷자락(좌측)		걸감 소재 (포폭/누비간격)
							제1 조각	주름수	밑단나비	무나비	
1459	겹	133.5	112	56	30	42	사다리꼴	0	50	21	주(33/0cm)

기보다는 큰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선의 작은 결대기 규모 역시 시대 양식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안선의 올방향은 요즈음과 같은 방향이지만 결선의 결대기 부분의 올방향도 안선과 같아서 요즈음 결선의 올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

뒷자락[後幅]은 좌우 겨드랑 부분부터 시작되는 대형 삼각무가 붙어서 아래 부분이 넓은 사다리꼴형을 이루고 있는데 길이 103cm의 세로 선단은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형이다. 뒷자락의 좌측 밑단나비는 50cm에 이르는데 1625년의 대형 삼각무가 달린 김약 묘의 도포 밑단 나비는 60cm이며 1670년의 소형 삼각무가 달린 홍극가 묘의 도포 밑단 나비는 49cm이다. 따라서 뒷자락의 밑단 나비 역시 1625년에서 1670년대 양식의 중간형으로, 뒤 품과 뒷자락의 전체 밑단 나비의 비율은 1:1.79 정도로 확인된다.

2) 앞길 무

도포에서는 앞길 옆선에 연결된 무가 시기 판별을 위한 단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옆선에 연결된 무의 형태는 임란 전후의 직사각형에서 임란 후 사다리꼴, 1660년대 이후 삼각형⁹⁾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유물에는 앞길 좌우 옆선에 각각 겨드랑점 위로 3.5cm 올라간 사다리꼴 무 2개, 그리고 연이어 직사각형 무 1개가 연결되어 모두 세 조각으로 구성된 넓은 무가 달려 있다. 즉 삼각형 무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사다리꼴형의 무가 달려 있다. 1614년 장기 정씨 묘의 아청색 겹도포나 1625년의 김약 묘 도포, 1634년 입계백 묘의 도포¹⁰⁾, 그리고 1670년 홍극가 묘의 홀도포 역시 사다리꼴 무가 달려 있다.

본 도포의 앞길 무는 바느질이 뜯겨져 현재 뒷길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정하는 데에 사용하였던 실이 부분적으로 무에 남아 있으며 뒷자락 안감 쪽에 바느질 흔적도 확인된다. 좌우의 앞길 무를 뒷길 안쪽으로 각각 넣어 위치를 잡아보면 양쪽의 무가 뒷길 안쪽 뒷중심선 상에서 27cm 내려온 지점에 정확하게 맞닿는다(그림 3).



<그림 3> 앞길 무를 뒷길 안쪽에 붙인 상태(도포의 안쪽)

3) 깃과 고름

도포의 깃(98×10cm)은 17세기의 남자 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깃 형태로, 말기의 둥근 깃머리 모양보다 뾰족하게 생겼다. 겹깃(43×10cm)은 들여 달린 반면, 안깃(37×8.5cm)은 끝이 약간 좁아지면서 완전히 내어달린 반목판깃이다. 그리고 홀명주 동정(71.5×7.5cm)은 겹깃 끝에서 15cm 떨어져 달려 있다.

한편 고름은 결감과 다른, 자주색 紬로 만들었는데 한 번 박은 후 꺾어 상침하는 직접부착형 방식으로 달렸다. 겹깃 쪽에는 고름의 일부만 남아 있고 우측 겨드랑이에는 완형의 고름(2.5×40.5cm)이 남아 있다. 안고름은 안감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는데 겹고름과 나비는 같고 길이는 1cm 정도 짧다. 그리고 겹고름 2개와 좌측 겨드랑 쪽 안고름은 시접 부분이 아래쪽을 향해 달렸고 안깃 끝에 달린 안고름은 시접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

4) 구성법

정광경 묘의 도포는 겹옷이기 때문에 홉질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솔기 방향은 좌우 모두 각각의 길 중심 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등솔기 방향은 착장시 우측을 향하고 있다. 구성법의 순서는 편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뒷중심선 잇기 : 앞뒤 길을 이어서 좌우 1장씩을 재단한 후 뒤 중심선을 홉질로 박는다. 이 때 결감의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

(2) 좌우 소매 달기 : 좌우 진동에 각각 두 폭 반의 소매 감을 홉질로 연결한다. 이때의 시접 역시

길 쪽을 향하도록 한다.

(3) 뒤길 무 연결 : 뒤길의 좌우 옆선에 겨드랑 부터 시작되는 긴 삼각형 무를 연결한다. 시접은 길 쪽으로 보낸다.

(4) 좌우 앞길에 섹 달기 : 좌측 앞길 앞중심선에 겹섹을 연결하고 다시 소형의 삼각형 겹대기를 붙여서 이중섹을 완성한다. 우측 앞길에는 안섹을 잇는다. 이때 시접은 모두 각각의 길 쪽을 향하도록 한다.

(5) 좌우 앞길 옆선에 무 달기 : 세 조각(사다리꼴형 2장, 직사각형 1장)으로 구성된 무를 앞길 좌우 옆선에 순서대로 각각 연결한다. 시접은 앞길 옆선 쪽을 향하도록 한다.

(6) 겹깃 달기 : 겹감에 겹감 깃을 단다.

(7) 배래 박기 : 배래를 박는데 시접은 소매 뒤 쪽을 향하도록 한다.

(8) 안감 바느질 : 안감도 겹감과 동일한 방식으로 1번에서 7번까지 바느질한다.

(9) 안팎 맞추어 박은 후 뒤집기 : 안감과 겹감의 거죽이 맞닿도록 하되, 안감을 겹감 안에 끼워 넣어 겹쳐 놓는다. 소매를 끼워 맞춘 후 수구를 돌아가며 박고 깃의 뒷고대를 중심으로 동정 길이보다 짧은 작은 창구멍을 남겨두고 안감과 겹감을 겹쳐서 가장자리를 따라 홈질로 박는다. 수구도 안팎 옷감을 겹쳐진 상태로 박은 후 시접은 겹감 쪽으로 꺾어 정리한 후 깃 부분의 창구멍으로 뒤집는다. 상의류 바느질에서 깃에 창구멍을 두는 방식은 이소담의 『재봉교본(1948)』¹¹⁾이나 孫貞圭의 『朝鮮裁縫(1949)』¹²⁾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손정규는 창구멍이 되는 부분에 ‘깃 마루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0) 옷 안팎 가장자리 고정하기 : 완성된 옷의 가장자리를 정리한 후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안팎 옷감이 고정되도록 상침한다.

(11) 고름 달기 : 겹고름과 안고름의 옷감을 달리 하여 각각의 치수로 겹고름을 만든 후 겹깃 쪽 고름은 겹깃과 섹에 걸쳐 놓되, 고름의 끝을 좌측 팔 소매 쪽을 향하도록 하여 반당침으로 박은 후 앞중심선 쪽으로 꺾어 다시 잔뺨으로 박는다. 우측 겨드랑 쪽의 고름 역시 우측 소매 쪽으로 길게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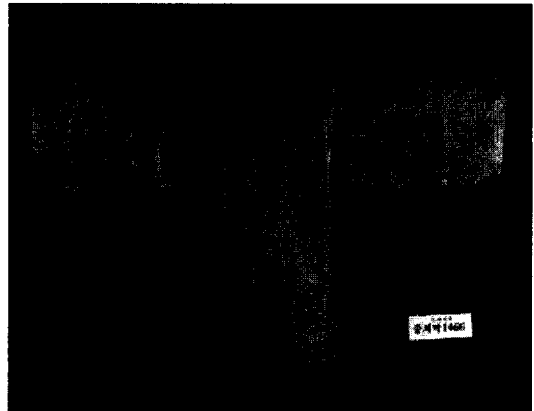
름을 펼친 상태에서 박은 후 다시 앞중심선 쪽으로 꺾어 박는다.

(12) 동정달기 : 시접을 0.5cm 정도로 접어 넣은 동정을 만든 후, 깃 안감 쪽에 1cm 정도 들어간 위치에서 박아 겹으로 넘긴 후 약간 굵은 땀으로 겹깃에 고정시킨다.

(13) 마무리 : 안깃 끝이나 좌우 섹 끝, 뒷자락 양 끝 모서리에 실꼬리를 꿰어 날렵한 모양을 만든다.

2. 정재후 묘의 솜누비 증치막

정재후의 묘에서는 모두 9점의 유물, 즉 증치막 7점, 소창의 1점, 사복 바지 1점이 수습되었는데 유물 상태가 대단히 좋은 편이다. 9점 모두 대령 이후 보공용으로 사용했던 누비 솜옷이다. 정재후의 사망 시기가 음력 6월 12일이므로 한창 더운 시기였을 것이나 계절이나 기온과는 관계없이 솜누비 옷을 보공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정재후(1624~1695) 묘 증치막
(유물 1466 : 길이 122.5, 화장 106, 폭 54cm)

정재후의 묘에서 수습된 증치막¹³⁾은 모두 7점이 다(표 3). 그 중 한 점은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6점(유물 1461~1466)은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 총 7점 중 3점(유물 1464·1466·후손 소장품)에는 깃과 옷자락의 모서리 부위에 실꼬리가 확인되므로 새 옷으로 판단되나 2점(1461·1463)은 단이나 소매 등에 낡은 부분과 오염된 부분이 확인

되므로 평소 착용하였던 옷으로 판단된다.

확인된다. 동정은 홀 명주를 사용하였는데 동정 나

<표 3> 정재후(1624~1695) 묘 중치막의 조형적 특징

중치막 유물번호	구성 유형	뒷길이	화장	품	옆트임 위치	소 매			뒷자락(좌측)		겉감 소재 (포폭/누비간격)
						진동	소매 나비	소매선	밑단 나비	무형태 (나비)	
1461	숨누비	116	104	52	46	29.5	44	급사선	33	0	주(38/0.7cm)
1462	숨누비	120	111	54	49	31	45.5	급사선	34.5	삼각형(4.3)	세주(34/1cm)
1463	숨누비	121	111	52	48.5	28.5	43.5	급사선	32	0	세주(39/3.5cm)
1464	숨누비	119.5	109	55	46	31	48	급사선	34.5	삼각형(3)	세주(36/3cm)
1465	숨누비	121	113	55	46	31	48.5	급사선	36	0	주(40/솔기선)
1466	숨누비	122.5	106	54	45.5	31.5	50	두리선	34.5	0	주(40/1.5cm)
후손소장품	숨누비	122	111	53	49	32	51	급사선	34.5	0	세주(42/1.6cm)

1) 치수와 구성적 특징

중치막 7점 모두 칼깃에 동정이 달려 있으며 소매가 넓고 옆트임이 있는 숨누비 중치막이다. 누비 간격은 0.7cm(유물 1461)에서 솔기선을 따라 누빈 넓은 간격의 누비(유물 1465)까지 다양하다. 특히 <유물 1465> 중치막은 본래 얇게 숨을 둔 숨 중치막으로 완성시킨 후에 솔기선을 따라 곱게 흡질을 하여 편의상 ‘솔기선 누비’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소재는 모두 무문(無紋)의 평직으로, 겉감에 세주(細紬)를 사용한 것이 4점(후손 소장품, 유물 1462~1464)이고 나머지 3점은 주(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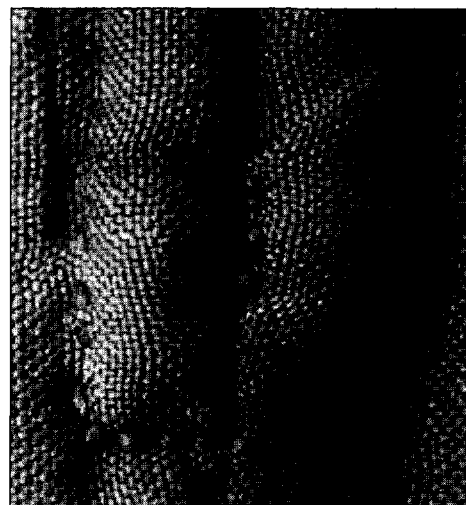
형태는 거의 비슷하며 치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유물 1461>과 <유물 1463>이 다른 유물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다. 그리고 길이가 가장 긴 중치막(유물 1466)은 진동과 소매나비 등의 치수도 크다. 뒷길이는 115.5~122.5cm 정도이며 화장은 99~112.5cm, 품은 51~56cm이다. 그리고 뒷자락 좌측의 밑단나비는 32~36cm로서 품보다 약간 넓은 형태이다. 진동은 28.5~32cm 정도이고 소매나비는 44~51cm, 수구는 20.5~22.5cm이다(표 2).

2) 깃과 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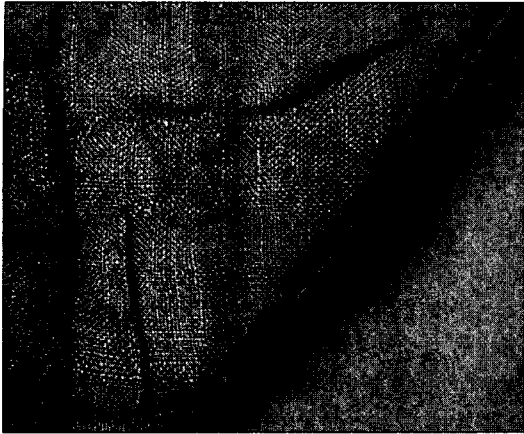
중치막의 깃은 모두 칼깃이며 깃 길이는 90cm 내외이며 나비는 11.5~12.5cm이다. <유물 1466>의 깃은 뒤 중심선 가까이에서 이음선(가름솔)이

비는 깃나비의 반 정도인 6cm이며 한 점(유물 1461)을 제외한 6점에 모두 한지심이 사용되었다. 동정 길이는 65cm 내외인데 겉깃 끝에서 12(유물 1463)~16.5(유물 1462)cm 떨어진 지점에 달렸다.

고름은 한 번 박고 다시 접어 상침한, 전형적인 직접부착형의 겹고름이다. 누비옷에 모두 겹고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겹고름의 나비는 2.4~4cm 정도이고 길이는 47~62cm이다. 안고름은 겹고름보다 약간 가늘고 짧은 양상을 보이는데, 나비가 1.5~2.5cm이고 길이는 28.5~62cm이다.



<그림 5> 수구 끝의 사뜨기(후손 소장품)



<그림 6> 배래선의 시침실(후손 소장품)

3) 소매나비와 배래선

진동은 28.5cm에서 32cm 정도이고 소매나비는 43.5cm에서 51cm 범위이다. 진동과 소매나비의 치수 차이가 14.5~19cm 범위에 이르며 특히 유물의 연대 추정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뒷길이나 소매나비의 비율은 1:0.36~0.42 정도이다. 祖父인 정광경의 도포 소매나비보다 넓어진 형태이다.

소매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부위는 겨드랑 쪽에 가깝게 위치한다. 소매 배래의 형태는 대부분 급한 사선형을 이루거나 수직으로 내려와 두리선을 이룬다. 소매 배래에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위치나 소매나비에서 17세기 말의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구 길이는 20.5~23cm 정도이며 특히 <후손 소장품>의 수구 가장자리에는 상침을 하였으며 수구 트임 끝에는 찢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뜨기 장식을 하였다(그림 5). 그리고 수구 쪽 배래선에는 배래선의 모양을 잡기 위한 시침실(그림 6)이 확인된다.

4) 옆트임 위치와 앞·뒤 자락의 무

뒷자락의 전체적인 형태는 총길이의 2/3 정도는 곧게 내려오다가 그 아래부터 아랫단 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넓어지는데 밑단 나비가 품보다 10여 cm 정도가 넓어진다. 옆트임은 뒤중심선에서 대략 45.5~49cm에서 시작되었다. 즉 허리선

정도에서 옆트임이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뒷자락의 좌측 밑단나비가 32~36cm이므로 2점(유물 1462·1464)에만 모자라는 폭을 늘리기 위해 밑단 양 쪽 끝에 소형 무 형태인 삼각형 결대기(나비 3cm, 4.3cm)를 달았다. 홍우협(1655~1691) 묘의 중치막 유물 중에서는 소형 결대기가 달린 것과 달리 없는 것이 동시에 확인되기도 하였다.¹⁴⁾ 뒷포م과 뒷길 밑단나비의 비율은 1:1.23~1.30(평균 1.27) 정도이다. 품보다 약간 넓은 상태로서, 정광경의 도포의 뒷자락 밑단나비보다 상당히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초기에 겨드랑 옆트임 쪽에 붙어있던 대형 삼각무나 사다리꼴 무가 소형으로 줄어들었다가 점차 소멸되는 양상이 이 묘의 중치막에서 재확인되는 셈이다.

5)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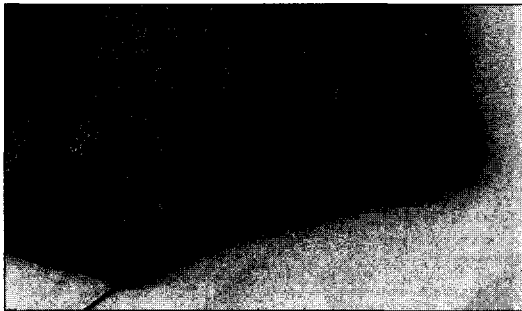
최근 발표된 충남 예산 출토의 坡平 尹氏(1735~1754) 묘 누비 삼회장 저고리의 조각들¹⁵⁾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의 누비옷은 일반적으로 옷감을 재단한 후 누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재후 묘의 누비옷들은 것이나 안감 등의 바느질 상태로 보아 이미 누벼진 옷감을 재단하여 구성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자료들을 기대하고자 한다.

(1) 솔기 잇기 : 앞길과 뒤길은 어깨솔기 없이 이어서 길게 한 장으로 하여 좌우 각각 1장씩을 재단하여 등솔기부터 잇는다. 등솔기를 포함하여 앞길 쪽 좌우 섯선, 진동선, 소매선, 소매 배래선 등 다른 조각과 연결되는 부위의 솔기는 걸감끼리 마주 보도록 맞대어 4장이 되도록 겹쳐 놓은 후, 시접 보낼 쪽의 안감을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장을 포개어 완성선을 홈질로 박는다. 홈질이 완성되면 양쪽 자락을 펴서 판판하게 한 후, 꿰매지 않은 안감의 솔기를 접어 홈질선 위에 맞춘 후 홈질선 위로 감침질하여 솔기를 정리한다. 수구 부분도 걸감과 안감을 공구르기하여 마무리한다.

(2) 배래선 바느질 : 배래선은 겨드랑 트임 부분까지 이어서 바느질하는데 뒷길 쪽의 안감 시접을 제외한 나머지 3겹을 포개어 홈질한 후 이 때 만들어진 시접은 뒷길 쪽으로 보내도록 한다. 박지 않

은 안감의 시접을 접어 정리한 후 반대편 안감 박음선에 맞춘 후 감침질한다.

(3) 별포 선장식 두르기 : 다른 조각과 연결되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에는 안감과 겹감 두 겹 뿐이므로 별도의 선, 즉 別布 선장식(그림 7)을 둘러서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안설텐이나 수구 부분에는 별포 단을 사용하지 않고 겹감 시접과 안감 시접을 마주보도록 겹감 시접 쪽으로 접어 넣은 상태에서 감침질하여 마무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포 단의 모서리 부분은 <유물 1462>처럼 사선으로 처리하는 경우(그림 8)도 있으나 대부분은 세로 방향의 단을 먼저 처리한 후에 밑단의 별포 단을 올려서 수평선 모서리(그림 7)로 처리하였다.



<그림 7> 별포 선장식 바느질법, 수평선 모서리 (유물 1463)



<그림 8> 선장식의 사선 모서리 (유물 1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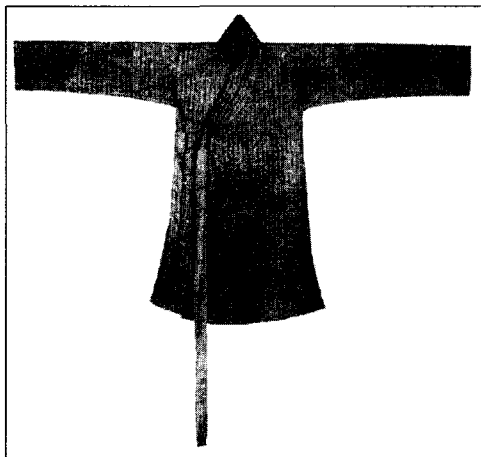
(4) 깃과 동정 달기 : 소매와 섶 등이 몸판과 모두 연결되어 옷이 완성되면 깃을 단다. 깃은 겹감 크기로 1장을 재단하되, 사방에 시접을 둔다. 재단 후 길의 겹감 쪽에 바느질하되, 동정이 달리는 깃의 끝은 부분은 누비선 사이에 시접이 마무리되도록 접혀 들어가도록 하며 깃머리의 사선 부분은 깃 가장자리 선에서 0.5~1cm 나비로 누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시접을 접어 넣는다(그림 9). 깃 겹감을 길에 바느질하고 깃 속으로 들어간 길의 여유 부분은 시접만 남기고 도려낸 후 깃의 안감 시접을 접어 넣고 감침질하여 마무리한다. 그리고 동정이 달리는 쪽의 푸서 부분은 겹감 시접으로 숨을 감싸서 접어 넣은 상태에서 안감 쪽 시접을 접어 맞붙여서 마무리한다. 동정 밖으로 노출되는 깃 가장자리에는 0.5cm 정도 들여서 곱게 상침한다. 동정은 명주 홀으로 하되, 안에 한지심을 댈다. <유물 1461>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정 안에 한지심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고름 달기 : 고름은 겹고름을 만들어 반당침으로 한번 박아서 꺾어 접은 후 다시 위를 잔뜩으로 고정시킨다(그림 9). <유물 1462>만 겹고름 1, 안고름 1만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겹고름, 안고름이 모두 달려 있는 상태이다. 고름의 시접은 후손 소장 유물과 <유물 1466>만 요즈음과 같은 방식, 즉 시접이 상향되는 방식으로 달았으나 나머지 유물에서는 고름 1개 정도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 있다. 시접 방향이 반대로 달린 고름의 위치는 일정하지 않은데, <유물 1461·1462·1464>는 안깃 쪽 안고름이, <유물 1463>은 겹깃 고름이, <유물 1465>는 좌측 겨드랑쪽 안고름이 뒤집혀 달려 있다. 정광경묘의 도포와 마찬가지로 고름의 시접 방향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홍우협 묘의 바느질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¹⁶⁾

(6) 마무리하기 : 앞·뒤자락의 모서리 부분, 안깃 모서리 부분 등에 실꼬리를 꿰어 매만져서 전체적인 옷맵시를 완성한다.



<그림 9> 깃머리 부분의 누비 처리(유물 1462)



<그림 10> 숨누비 세주 소창의(유물 1460)

3. 정재후 묘의 소창의

정재후 묘의 소창의(그림 10)¹⁷⁾는 1점인데 이 역시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옷이다. 얇게 숨을 두

어 누빈 숨누비 세주(細紬) 소창의(안감 紬)로서, 38cm 한 폭에 2cm 내외의 간격으로 다른 폭과 연결되는 좌우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17줄로 누볐다.

1) 치수와 구성적 특징

옷길이는 111cm이며 화장은 94.5cm, 품은 52cm로서, 중치막보다 크기가 다소 작으며 소매가 진동(27cm)에서 수구(19cm) 쪽을 향하여 직배래로 좁아지는 착수이다. 옆트임(길이 57cm)의 위치는 뒷중심선에서 51cm 내려온 지점에 해당되는 부위에서부터 트였는데 허리선 정도에서 트인 중치막의 트임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표 4).

전체 길 1폭과 소매 2폭을 연결하였으며 시접은 설편과 소매쪽 시접이 길 중심을 향하고 있다. 안설편 각 폭의 시접 역시 설편과 소매에서 모두 길 중심 쪽을 향하였다. 옷감의 나비가 38cm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길 나비를 24cm 정도로 좁게 재단하였으며 품을 늘리기 위해 겨드랑 아래로 가늘고 긴 사다리꼴 무(나비 6cm)를 연결하였다. 나비 6cm 정도의 사다리꼴 무가 달린 뒷자락의 가장자리 선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다른 묘의 유물 중에는 옷감이 모자라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결대기를 댄 경우가 있다¹⁸⁾고 하는데 이 소창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초 장기 정씨 묘의 소창의는 좌측 밑단 나비가 41cm인데 17cm 나비의 삼각무가 달려 있다.¹⁹⁾ 그리고 정재후 묘의 소창의에는 6cm, 그와 비슷한 시기의 최원립(1618~1690) 묘에서는 소형 결대기가 달린 소창의가 확인된다.²⁰⁾ 1691년 홍우협 묘의 소창의는 밑단나비가 대략 34, 35cm 정도인데 10점 중 2점에만 결대기가 달려 있으며 결대기가 달린 경우에도 그 나비가 2cm 미만으로 대단히 작다. 그러나 17세기 중기의 사암공파 동래정씨 묘 유물²¹⁾ 중에서 이미 뒷자락에 결대기가 없는

<표 4> 정재후(1624~1695) 묘 중치막의 조형적 특징

소창의 유물번호	구성 유형	뒷길이	화장	품	옆트임 위치	소 매			뒷자락(좌측)		겉감 소재 (포폭/누비간격)
						진동	수구	소매선	밑단 나비	무형태 (나비)	
1466	숨누비	111	94.5	52	51	27	19	직배래	30	사다리꼴(6)	세주(38/1.6cm)

소창의가 확인된다.

따라서 소창의도 중치막과 마찬가지로 17세기 말 이후에 무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옷감의 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17세기 초의 넓은 밑단이 17세기 말에 이르러 좁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뒷 품과 밑단 전체나비의 비율은 1:1.15이므로, 겹옷으로 입은 중치막보다 아랫단이 넓어지는 정도가 더 적은 편이다.

솜은 겹섶, 안섶 모두 단섶으로, 겹섶은 곧은 울로 재단해서 앞중심선에 연결했으며 안섶은 사선으로 재단해서 섶의 선단이 울방향이 되도록 바느질하였다. 곧은 울이 사용된 안섶의 안단에만 별포 선장식을 두르지 않았으며 곡선으로 재단되면서 푸서 상태가 된 좌우 옆트임 부분, 밑단 부분, 앞섶의 선단 부분에는 2cm 나비의 별포 선장식을 들렀다. 세로 방향의 선을 먼저 두르고 아랫단을 올렸는데 그 끝 모서리는 급경사의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2) 깃과 동정, 그리고 고름

깃 모양은 칼깃이며 깃나비는 11cm이므로 역시 중치막의 깃보다 좁은 편이다. 깃나비 11cm 내에 양쪽 솔기선을 제외하고 5줄이 직선으로 누벼져 있으며 가장자리에서 0.5cm 들어온 위치에 상침장식을 하였다(그림 11). 깃을 단 방법은 중치막과 동

일하며 현재 동정은 달리지 않은 상태이다. 동정이 달리는 부분의 걸감과 안감을 연결한 부분은 바느질이 영성하다.

한편 고름은 직접부착형의 겹고름인데 겹고름과 안고름이 모두 달려 있다. 겹고름은 나비가 4.5cm이고 길이는 걸섶 쪽의 고름이 97.5cm, 우측 길에 달려 고름이 72.5cm이다. 걸섶 쪽의 긴 고름은 35.5cm와 62.5cm의 두 조각을 이어서 가름솔로 처리하였다. 걸깃 쪽 고름이 길어서 길이가 25cm나 차이가 있는데 걸깃 쪽 고름을 허리에 한 번 둘러 맬 수 있는 돌띠형 고름²²⁾이다. 돌띠형 고름이 사용된 경우에는 소형의 일반 고름이 사용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고름 폭이 대체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남자 포에서 돌띠형의 긴 고름은 임란 전 1580년대의 이석명의 묘의 철릭²³⁾과 이용태 묘 철릭²⁴⁾, 신여관 묘의 철릭과 액주름²⁵⁾ 등, 주로 일상복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안고름은 겹고름보다 폭과 길이가 모두 작아서 겹고름과 안고름의 크기 차이가 확인되었다. 안깃에 달려 고름만 시접을 아래쪽을 향한 반면 나머지 고름 3개는 요즈음 고름 방식처럼 시접이 위쪽을 향하는 방식으로 달려 있다.

3) 소매나비와 배래선

소매는 진동이 27cm, 소매 중간의 솔기 길이는



<그림 11> 소창의 깃 부분의 누비



<그림 12> 소창의의 소매 안단

22cm, 수구는 20cm이다. 따라서 소매나비는 중치막에 비해 반 정도로 좁을 뿐만 아니라 수구 쪽으로 곧게 좁아지는 착수형이다. 좌우 소매 수구의 안쪽에 5cm 나비의 紬 옷감을 들렀는데 이는 때가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덧단으로 짐작된다(그림 12).

4) 구성법

숨을 얇게 두고 2cm 간격으로 누빈 옷감을 부위별로 장만한다. 다른 상의류와 마찬가지로 앞길과 뒤길은 어깨솔기 없이 이어서 길게 한 장으로 하되, 좌우 각각 1장씩을 재단한다.

(1) 솔기 잇기 : 등솔기, 앞길 쪽 좌우 섰선, 진동선, 소매선, 겨드랑 무 연결선, 소매 배래선 등 다른 조각과 연결되는 부위의 솔기는 걸감끼리 마주보도록 맞대어 4장이 되도록 겹쳐 놓은 후, 시접 보낼 쪽의 안감을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 겹을 겹쳐서 완성선을 고운 홈질로 박는다. 홈질이 완성되면 좌우 자락을 펴고 함께 꿰매지 않은 안감 솔기를 접어 넣어 홈질선 위에 맞춘 후 홈질선을 따라 감침질하는 방식으로 솔기 붙임을 완성한다. 소매 배래선은 겨드랑 트임 부분까지 이어서 바느질하는데 뒷길 쪽의 안감 시접을 제외한 나머지 3겹을 포개어 홈질하여 이 때 만들어진 시접은 뒷길 쪽으로 보내도록 한다. 박지 않은 안감의 시접을 접어 정리한 후 반대편 안감 바느질 선에 맞춘 후 감침질한다.

(2) 별포 선장식 두르기 : 다른 조각과 연결되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에는 숨을 사이에 둔 안감과 걸감 두 겹을 한 겹처럼 다루어 별포 선장식을 둘러 마무리한다. 밑단 양 끝의 별포 선장식의 모서리 부분은 가파른 대각선으로 처리한다(그림 19). 안섰 단이나 수구 부분에는 별포 단을 사용하지 않고 안감과 걸감만으로 솔기를 마무리하였다. 단 수구 안쪽에는 때묻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cm 나비의 별도의 옷감을 둘러서 거칠게 시침질한다.

(3) 깃 달기 : 소매와 섰 등이 좌우의 길과 모두 연결되어 옷이 완성되면 깃을 단다. 깃은 1장을 재단하되, 사방에 시접을 둔다. 길 걸감에 먼저 걸감 깃을 다는데 직선 부분의 시접은 누비 줄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접혀 들어가도록 하고 깃머리에 의한 사선 부분의 시접은 깃 가장자리 선에서 0.5~1cm 정도로 누비 실을 풀고 그 사이에 접어 넣어 공구르기 한다. 따라서 깃머리의 둥글려진 부분에는 누비가 되지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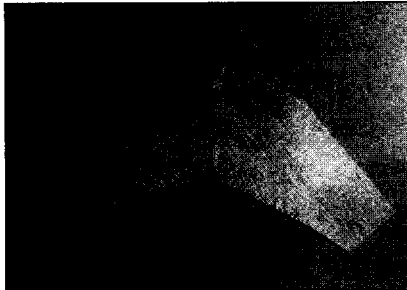
걸감 깃의 바느질이 끝나면 깃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필요 없는 길 부분을 시접만 남기고 도려낸다. 길 안감 쪽에는 깃 안감 쪽 시접을 접어 넣고 겹으로 깃 달았던 선에 맞추어 감침질하여 마무리한다. 그리고 동정이 달리는 쪽의 깃 푸서 부분은 안감 시접으로 숨을 감싸서 걸감 쪽으로 접어 넣은 상태에서 공구르기로 시접을 마무리한다. 동정을 달기에 앞서 동정 밖으로 나올 깃 양 끝에는 가장자리에서 0.5cm 들어온 부분에 상침을 한다. 상침이 완성되면 동정을 제 위치에 단다.

(4) 고름 달기 : 고름감을 길이로 접어서 겹고름을 만든 후 반당침으로 한번 박아서 꺾어 접은 후 다시 위를 잔땀으로 박는다. 겹고름, 안고름이 모두 달려 있는 상태인데 고름의 시접은 안깃 쪽 고름만 하향으로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세 장의 고름은 모두 시접이 상향이 되도록 단다. 중치막과 마찬가지로 고름의 시접 방향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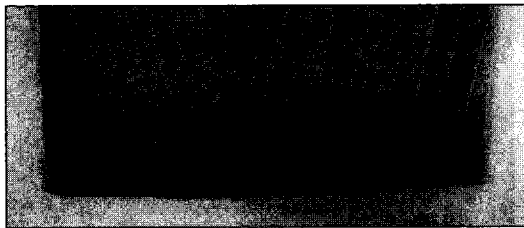
(5) 마무리하기 : 앞·뒤 자락의 모서리 부분, 안깃 모서리 등에 실꼬리를 달고 매만져서 전체적인 옷맵시를 완성한다.

4. 정재후 묘의 사폭 바지

정재후의 묘에서는 細紬 숨누비 사폭 바지(그림 13) 1점이 수습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사폭 바지의 유물은 임란 당시 의병을 지낸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장군 묘에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²⁶⁾ 걸감 없이 숨만 남은 상태이므로 바지의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묘의 사폭 바지를 비롯하여 17세기 묘에서 사폭 바지들이 수습되고 있어서 구조와 재단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3> 정재후 묘 사폭 바지(유물 1455)



<그림 14> 바지 부리의 별포 선장식(유물 1455)

1) 치수와 구성적 특징

바지의 전체 길이는 109cm인데 허리 부분의 높이가 17cm이고 마루폭 길이가 92cm이다. 그리고 작은사폭의 길이는 60cm이다(표 5). 이상의 치수는 지금까지 수습된 17세기 바지 유물의 치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허리둘레는 118cm이고 바지부리는 접힌 상태가 28cm이므로 허리와 발목이 가는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이 바지 주인의 체형은 비교적 다리가 길고 살이 찌지 않은 체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정재후(1624~1695) 묘 사폭 바지의 조형적 특징

바지 유물번호	구성 유형	총길이	허리		마루폭			큰사폭 나비	작은사폭 길이	바지 부리	겉감 소재 (포폭/누비간격)
			둘레	높이	길이	너비	태나비				
후손소장품	숨누비	109	118	17	92	46	9	49	60	28	세주(49/1.5cm)

누비는 1.5cm 정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각마다 옷감의 울 방향에 맞추어 누벼져 있다. 시점의 방향은 요즈음 바지와 같다. 허리 이음선은 가름솔로 처리하였으며 마루폭 주변 부분의 시점은 마루폭 중심 쪽을 향하고 있다. 큰사폭과 작은

사폭의 연결선은 큰사폭 쪽으로, 바지통과 허리 연결선의 시점은 허리 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이 사폭 바지는 다른 묘에서 출토된 사폭 바지와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1장으로 만든 원통형의 허리 부분과 좌우 마루폭이 있으며 양쪽 마루폭 사이에는 큰사폭과 작은사폭이 놓여 있다. 허리통 이음선은 바지 뒤쪽의 까마귀 머리 중심 가까이에 이음선을 두었다. 또한 앞뒤의 큰사폭 끝 밑단 쪽에 나비 5cm, 그리고 높이가 2.5cm(앞), 3cm(뒤) 정도인 작은 사다리꼴 조각이 이어져 있다(그림 14).

마루폭과 사폭을 연결하고도 바지 통이 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루폭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별도의 조각을 덧붙인다. 이런 조각을 ‘태’라고 하는데²⁷⁾ 정재후 묘의 바지 마루폭에도 앞과 뒤에 나비가 9cm되는 태가 1장씩 연결되어 있다. 18세기 초 의원군(1661~1722)의 바지에서도 태가 확인되었지만 정휴복 묘²⁸⁾와 홍우협 묘²⁹⁾ 등과 같은 17세기 묘의 바지 유물 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태의 위치는 유물마다 일정하지 않는데 본 묘의 경우는 큰사폭을 오른쪽 다리에 오도록 입을다고 가정할 때, 앞쪽에는 큰사폭 쪽에 태가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오른쪽 다리 쪽에 있게 되고 뒤쪽에는 왼쪽 다리부분인 작은사폭 쪽의 마루폭에 연결되어 있다.

2) 구성법

바지의 누비감 역시 중치막이나 소창의 처럼 이미 누벼진 옷감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1) 마루폭 만들기 : 마루폭에 태 1장을 이은 조각을 두 장 마련한다. 솔기는 겉감 2장과 안감 1장을 포개어 세 겹 박음을 하고 함께 박지 않고 남은 안감으로 다른 쪽 안감을 덮어 안쪽에서 마무리한다. 이 방식은 중치막과 소창의에서 모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2) 사폭 잇기 : 태가 연결된 마루폭 1장 좌우 가장자리에 큰 사폭을 각각 잇는다. 큰 사폭에 작은 사폭을 연결한 후 다시 다른 마루폭을 연결하여 바지통을 완성한다.

(3) 허리 달리 : 허리 부분을 안팎 가름솔로 완성하여 바지 위 부분과 연결하는데 시접은 허리 쪽으로 둔다.

(4) 바지 단 선장식 : 바지 단에는 안쪽으로 별포 선장식을 두르는데 감침질로 마무리한다.

IV. 맺음말

1989년 동래 정씨 興谷公派 묘역에 있던 鄭廣敬(1586~1644) 묘에서는 보공용 도포 1점이 수습되었고 손자 鄭載厚(1624~1695)의 묘에서는 보공용 중치막 7점, 소창의 1점, 사폭 바지 1점이 수습되었다. 이들 17세기 중·후기 남자 복식류의 조형성과 구성법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광경 묘의 아청색 주 겹도포는 17세기 중기의 도포 양식의 변화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특히 소매나비와 소매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부위, 걸쇠의 규모와 구조, 앞길 무의 구조와 무 주름의 소멸, 무의 有無와도 관련된 뒷자락 나비 등을 통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매나비는 42cm 정도로서 뒷길이와 소매나비의 비율은 1:0.31이다. 1620년대의 도포 소매나비보다 넓으나 1660년대 이후의 도포 소매나비보다는 좁은 형태였다. 그리고 소매가 넓어지는 위치는 1620년대보다 진동 쪽으로 이동된, 소매의 1/3 지점이었다. 도포 앞길의 무 제1 조각에 사다리꼴 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1644년에도 사다리꼴 무가 여전히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625년 도포에서 확인된 사다리꼴 무의 주름이 이 시기에는 사라졌음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뒷자락 밑단나비는 100cm였으므로 이러한 도포의 밑단이 넓은 것은 17세기 중엽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재후의 묘에서 보공용으로 사용된 명주

솜누비 중치막 7점은 칼깃형의 끈은 깃 포로서 옆트임이 있고 소매가 50cm 내외로 비교적 넓었다. 진동보다 20cm 정도까지 넓어지면서 거드랑점 가까운 부위에서 배래가 부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7세기 말의 중치막이므로 걸쇠에서는 이중선이 사라져서 단선이 되어 있었으며 중치막 양옆의 무 또는 결대기가 있고 없음은 착용자의 체격, 그리고 옷자락의 나비 정도와 사용되는 옷감의 나비에 의해 다르지만 뒷자락 밑단나비가 점차 줄어들면서 옆선의 무가 결국 소멸하는 변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중치막과 거의 형태가 유사하나 크기가 약간 작고 소매가 좁은 것을 소창의로 분류하였다. 정재후 묘에서 수습된 1점의 명주 솜누비 소창의는 다른 묘의 소창의 보다 치수가 작은 편이었으며 돌띠형 고름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중치막에서와 마찬가지로, 밑단 나비가 줄어들면서 17세기 초에 비교적 컸던 양옆 무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재후 묘의 보공용 명주 솜누비 바지 1점은 마루폭에 태 조각을 붙인 사폭 바지로서 보편적인 17세기의 바지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단지 다른 17세기 바지 유물들의 치수와 비교하여 하체가 길고 마른 체형을 지닌 인물의 옷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누비 옷감을 이용한 유물들을 통해 누비 바느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누비는 것 자체는 어렵다 할지라도 누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일반 겹옷을 만드는 것보다도 바느질 과정이 간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비옷을 제작할 때, 재단 후 각 조각을 개별적으로 누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벼진 옷감을 구하여 옷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17세기 복식문화의 특징은 16세기와 18세기의 교량적 시기답게 복식 변화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복식의 변화 양상이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걸쇠의 구조와 규모, 소매나비, 소매가 넓어진 위치, 무의 유무와 관련된 뒷자락 밑단나비의 정도 등, 몇 부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복식이 출토된 무연

고 묘의 연대를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확인되는 새로운 유물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할 때 유물의 더욱 정확한 연대 추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京畿道 (1992). 東萊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 수원: 京畿道
- 2)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六百年史 CD-Rom, 서울: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 3) 경기도박물관 (2000). 조선의 옷 매무새, p. 13.
- 4) 裴尙慶 (1992). 貞夫人 驪興閔氏(東萊鄭廣敬의 配位) 遺衣에 관한 保存處理 및 服飾史의 考察. 東萊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京畿郷土史料集 第五輯). 京畿道, p. 23.
- 5) 李恩珠 (1999).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5-127.
- 6) 이은주 (2000). 장기 정씨 묘 출토 유물,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포함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p. 150.
- 7) 이은주 (1999). 앞의 책, p. 227. pp. 235-236.
- 8) 林裁永 (1980). 朝鮮時代의 百官服.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 9) 高富子, 朴聖實 (1990). 驪州 出土 東萊鄭氏(思庵公派) 遺物 小考. 韓國服飾, 8, p. 88. 2003년 현재까지 보고된 유물 중에서 삼각무가 연결된 도포로는 정태계(1669년) 묘의 것으로 짐작되는 향라 도포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 10) 장인우 (1998). 임경백·임계백 묘 출토복식. 충북대학교박물관 편. 年譜, 7, p. 88.
- 11) 이소담 (檀紀4281). 재봉교본. 서울: 고려문화사, p. 31.
- 12) 孫貞圭 (檀紀4282). 朝鮮裁縫. 서울: 三中堂, p. 47.
- 13) 옆트임이 있는 포로서, 소창의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길이가 약간 더 길고 소매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중치막으로 분류하였다.
- 14) 金明淑 (1999).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김영자 외 (1999). 朝鮮時代 服飾研究. 서울: 學研文化社, p. 85.
- 15) 고부자 (2003). 충남 예산 출토 坡平 尹氏(女, 1735~1754) 유물 연구. 韓國服飾, 21, p. 112.
- 16) 金明淑 (1999). 앞의 책, p. 113.
- 17) 중치막과 마찬가지로 옆트임 포 또는 긴 상의류로서, 길이가 중치막에 가슴을 꿰고 소매나비도 좁은 것을 소창의로 분류하였다.
- 18) 金明淑 (1999). 앞의 글, p. 85.
- 19) 이은주 (2000). 앞의 글, p. 152. 이 보고서에는 '중치막'으로 명명하였으나 '소창의'로 명명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 안명숙, 조효순 (2001). 전남 영암 출토 최원립 장군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韓服文化, 4(4), p. 17.
- 21) 高富子, 朴聖實 (1990). 앞의 글, p. 103.
- 22) 돌띠형 고름이란 허리를 한 번 감아 맬 정도의 긴 고름을 지칭한 것인데, 어린 아이들의 상의류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성인의 옷에서도 확인되며 풍속화에서도 성인의 상의에 돌띠형 고름이 사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 23) 이순원 외 (2000).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pp. 100-101.
- 24) 이은주 (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유물,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보고서, p. 300.
- 25) 高富子 (1999). 日迎 出土 高靈 申氏 遺物 小考. 韓國服飾, 十七, pp. 72-76.
- 26) 文化財管理局 編 (1986).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 篇 下. 서울: 文化財管理局, p. 121.
- 27) 김미자 (2001). 의원군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경기도박물관 편.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광주 고읍 인평대군과 의원군 일가, p. 207.
- 28) 朴聖實, 高富子 (1989).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대한 小考. 韓國服飾, 7, pp. 130-131.
- 29) 金明淑 (1999). 앞의 글, p. 68.